

經營學과 價値 및 思想

—經營學思想史的 接近을 위한 試論的 探索—

金 元 銖

◁ 目 次 ▷	
I. 序 言	III. 經營學에 미친 價値 내지 思想의 影響
II. 領域假定, 패러다임 및 價値와 思想의 關係	IV. 結 言

I. 序 言

經營學이라는 학문 내지 知識體系는 대체로 産業革命을 계기로 하여 經營學의 母國으로 불리워지는 독일과 미국에서 발전되었다. 그런데 양국에 있어서의 經營學의 主流는 서로 달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經營管理論(science of management)¹⁾이었고 독일의 경우에는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이었다. 따라서 명칭 그 자체도 萬國共通이며 그 課題나 性格도 國際的인 經濟學과는 달리 經營學이라는 이름아래 總括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지식 체계는 그 명칭도 母國으로 불리워지는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서로 다르며 대상이나 방법도 달라서 一國的(national)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cf. [23] p. V 序文).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서로 다른 양국의 主流가 되는 經營學도 또한 그 現狀은 비슷하게 多樣化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독일경영학의 主流인 경영경제학의 경우 좀발트는 1930년대의 現狀을 가리켜 “동일하게 經營經濟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달에 관한 연구와 지구에 관한 연구만큼의 차이가 있다”([54] p. 6)고 개탄하였고 슈마렌바흐는 경영학이 “方向喪失症에 걸렸다”([24] p. 365)고 우려할 정도로 多樣化되어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영학의 主流인 經營管理學의 경우에도 이미 1950년대중반에 비러즈는 “이 학문이 더욱 복잡화되고 있고 이의 새롭고 또한 보다 완전한 綜合化의 가능성”([61] p. 95)을 지적하였으며 어윈도 “經營管理라고 하는 광범한 영역과 관계가 있는 단행본이나 잡지논문의 방대한 集積이 있으나 이는 전연 組織化되어 있지 않은 集積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熱帶의 密林에서와 같이 그것은 저마다 마음내키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 자라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아주 활발

筆者: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計量的 方法을 중심으로 하는 自稱 “管理科學”(management science)과는 다른 의미이다.

히 分岐되어가고 있으나 方向感이 없고 어떠한 普遍(一般)的인 計劃을 따른 것은 아주 적다. 더구나 그것은 密林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지만 하나의 觀點에서 다른 觀點으로 직접 이동하기는 어려워서 다침내는 완전히 迷路에 빠져들기 쉽다”([60] [17] p. 47)고 그 密林相을 지적하였었다.

문쯔는 1961년의 “經營管理論의 密林相”([44]) 및 이듬해의 “經營管理理論의 解明”([43])을 통해 經營管理研究의 密林相을 지적하였었다(cf. [1] pp. 18-20). 이것이 導火線이 되어 1962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經營管理의 一般理論의 형성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려([42] p. xi preface) 自覺的인 方法論爭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經營學이라는 學問은 나라마다 그 主流가 되는 分科學問(分科學: discipline—이하 經營分科學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명칭이나 성격이 저마다 다르고 또한 그 안에서는 다양한 研究傾向이 생겨 密林相과 같은 混亂相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主流이외의 연구경향까지 포함한다면 각국에 있어서의 經營學의 多樣化로 인한 混亂相은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學問的 後發國인 우리 나라의 經營學의 現狀은 이와 같은 學問的 先發國의 現狀이 그 移入過程에서 增幅되어 波及됨으로써 더욱 심각하리라는 것은 首肯이 가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보다 經營學을 먼저 移入한 이웃 日本의 經營學에 대한 다음과 같은 現狀評價에 관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cf. [13] pp. 536-542).

- ① 百家爭鳴式
- ② 直輸入・翻譯經營學
- ③ 美國直輸入型 模倣經營學
- ④ 管理⁽²⁾技術論偏重性
- ⑤ 巨視的 側面과의 不調和
- ⑥ 日本的 經營風土에의 非適合性
- ⑦ 理論⁽³⁾的・觀念的~理論과 現實의 遊離
- ⑧ 지나친 企業⁽⁴⁾指向性~企業利潤 및 企業成長중심

만약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經營學研究의 後發國은 물론 그 先發國의 經營學의 現狀이 이와 같이 評價될 때 그 多樣性的의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 (2) 經營管理와 同意임.
 - (3) 純粹理論 내지 抽象的 理論만을 뜻함.
 - (4) 資本組織體로 보는 傳統的 企業概念임.

하나는 예컨대 사이몬과 같이 이를 研究分業의 결과로 보아 그 多樣性を 시인하는 肯定論의 입장인데 사이몬은 그 자신의 科學觀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53], [42] p.85).

“科學⁽⁵⁾이란 모든 創造的 活動과 마찬가지로 探險이며 도박이며 모험이다. 그것은 精緻한 靑寫眞이나 상세한 道路案内圖나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의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이것이 科學이 재미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多樣的 研究傾向을 나타내는 “諸接近方法의 綜合(synthesis)을 신중히 고려하지는 않는다”([53], [42] p.77)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研究成果나 接近方法을 綜合化하려는 企圖는 그들(즉,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知的 自由事業家)이 가진 權利的 일부를 빼앗기게 되는 것으로 보거나 知的 接近法의 獨創性을 질식시키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斷片的인 연구만 하고 특수영역만 다루어 새로운 개념이나 接近方法을 생각하고 새로운 假說을 검증하는데 만족하고 반면에 이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經營管理의 一般理論을 구축하려는 피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cf. [56], [42] pp.240-241)으로 탄넨바움은 당시의 討議記錄을 통해 報告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예컨대 쿤즈와 같이 이러한 多樣性を 混亂 내지 彷徨相으로 보아 이의 統合 내지 綜合을 지향하는 否定論 내지 統合論의 입장인데 쿤즈는 이러한 混亂(entanglement)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cf. [42] pp.10-14).

- ① 意味上的 혼란(semantic jungle)
- ② 經營管理에 대한 諸見解의 차이
- ③ 先驗的인 假定(a priori assumption)의 차이
- ④ 原則(原理, principles)에 대한 誤解
- ⑤ 相互理解의 嫌惡 내지 非意欲

그리하여 그는 管理過程理論의 입장에서 經營管理理論의 綜合化 내지 統合化를 통한 經營管理理論의 一般理論의 形成을 指向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가지 見解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이 보다 합리적인 것일까?

쿤은 어떤 科學은 초기단계에서 多樣性を 나타내는 여러 學派⁽⁶⁾가 생기는 狀況은 적어도 관찰한 사실들을 선택·평가 및 비판할 수 있게 하여주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理論的 및 方法論的 信念의 어떤 暗默的인 實體(implicit body)가 없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없으므로

(5) 學問과 同意語이다.

(6) 經營學상의 학파에 관해서는 [1] 第1章 第4節 pp.25-41 참조.

패러다임(paradigm) 형성이전의 여러 前패러다임學派(preparadigm school) 중의 어떤 한 학과가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위의 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記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45] pp.16-17)고 하여 學問分化에 의한 多樣性的의 형성가능성을 보다 優勢한 理論(dominant theory)으로 이해되는 패러다임(paradigm)(ibid., p. 18, [46] p.27)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쿤의 주장을 따를 때 經營學上的 혼란은 바로 이러한 前패러다임學派의 亂立相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社會科學상의 패러다임의 형성에 대해 쿤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45] p. 15) 社會科學上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背後假定(background assumption)의 하나인 領域假定(domain assumption)이 쓰이고 있고([31], [15] pp.264-265) 經營經濟學上으로도 이의 형성가능성을 주장하는 事例가 있다([40], [5] p.1). 그러므로 자연과학상의 패러다임 및 사회과학상의 對應概念인 領域假定은 마땅히 經營學상으로도 형성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다면 經營學상의 混亂相은 바로 前패러다임學派의 亂立相이며 이들 학과간의 對立 내지 併存은 바로 그들이 受諾하고 있는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에 대한 獨斷的인 信奉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쿤은 어떤 理論을 패러다임으로서 연구자가 받아들인다면 그는 더 이상 그의 연구영역을 새로이 定立하기 위해 諸原則을 따지거나 비롯하여 이미 도입된 각 개념의 活用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기([46] pp.19-20)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오늘날의 經營學의 現狀評價의 결과 파악되는 多樣성은 바로 前패러다임學派 즉, 諸接近方法간의 對立相이며 그것은 바로 그들이 受諾한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의 차이와 그들이 受諾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盲從的인 信奉에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本稿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 학자로 하여금 저마다 다른 觀點에서 저마다 다른 연구성과를 낳게끔 하는 바탕에는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의 本質이 무엇이며 이것이 學問, 分科學(科學), 理論 내지 研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經營學上으로는 그 결과 어떠한 現狀이 露呈되고 있는가 試論的으로 살펴보고 하는 것이다.

II. 領域假定, 패러다임 및 價値와 思想의 關係

우리는 앞에서 어떤 學問의 分化에 의한 多樣성과 그 對立으로 인한 混亂相은 바로 研究者가 受諾·信奉하고 있는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의 차이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패러다임 내지 領域假定이란 무엇인가?

쿤은 패러다임을 무려 21가지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는데([46] pp. 61-65) 어떤 경우에는 명확히 明文化된 理論體系의 뜻으로 사용하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막연하게 價值觀, 世界觀 또는 認識論的 觀點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20] pp. 8-9). 어쨌든 그는 이를 支配的 理論(dominant theory)으로 보고 있다고 評價되고 있는데([46] p. 27) 그 까닭은 새로운 패러다임 즉 理論은 기존의 패러다임 즉 理論보다 그 대상을 더 잘 설명·예측·이해 내지 制御할 수 있게끔 보다 새롭고 더 엄밀하게 定立하여 고찰할 수 있는 理論的 틀 내지 테두리(framework)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世代의 연구자들을 魅惑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綜合(synthesis)으로서의 支配的 理論이 형성되면 舊來의 학파는 그 소속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轉向하게 됨으로써 점차 사라지게 된다고 보고([45] pp. 18-19)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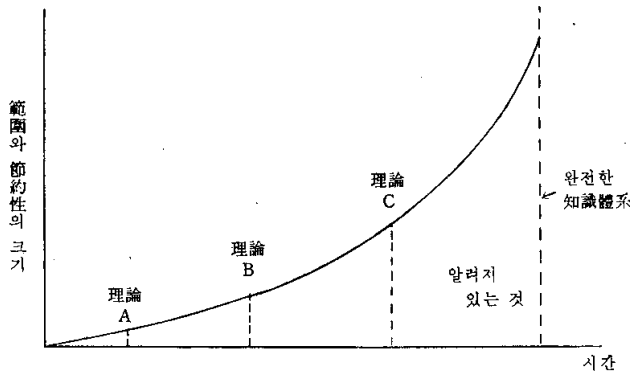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本質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를 支配的 理論이라고 할 때 理論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實體는 무엇일까?

理論(theory)은 연구자가 어떠한 科學觀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理解가 엇갈린다. 靜態的 科學觀을 따르면 이는 엄연하게 法則의 體系로 이해된다. 그러나 動態的 科學觀을 따르면 이는 法則의 可變性을 전제로 하여 原則의 體系 심지어는 假說의 體系로 인식되기도 한다(cf. [1] pp. 84-88). 檢證된 假說이 原則이고 보다 더 檢證되고 일반적으로 受諾된 原則을 法則으로 본다면 이론에 대한 이러한 세가지의 見解는 바로 “하나의 連續線上-약간의 최하위의 暗示的인 假說만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최상위의 普遍的 性格을 가지는 諸法則에 이르기까지의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이에는 약간의 經驗的 證據에 의해 뒷받침되는 豫測力의 정도가 저마다 다른 諸假說이나 理論的 모델(模型)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아직도 反證받을 수 있는 一般化, 아이디어(觀念) 내지 原則들인 것이다”([63] p. 45). 이러한 입장에서는 理論을 그 豫測力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cf. [47] pp. 630-631).

- ① 低範圍理論(lower range theories)
- ② 中範圍理論(middle range theories)
- ③ 高範圍理論(higher range theories)

헤이그는 다음과 같은 理論評價基準을 제시하고 있다(cf. [36] pp. 212-216).

- ① 範圍(scope)
- ② 節約性(parsimony)



〈圖 1〉 理論과 知識의 關係
(資料 [36] p. 219)

- ③ 豫測의 程度 (precision of prediction)
- ④ 說明의 正確性 (accuracy of explanation)

이러한 評價基準을 따르면 앞서의 세가지 理論은 〈圖 1〉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學問 내지 科學으로서의 知識體系 즉 완전한 知識體系로 가까워져 가는 A, B 및 C의 理論으로 對比시킬 수 있다.

이처럼 理論을 知識의 極限으로의 近接性을 전제로 평가하면 理論 C의 範圍와 節約性이 理論 A 및 B보다 더 크며 이론에 의한 豫測의 程度나 說明의 정확성도 증대되므로([36] p. 219) 이 理論 C가 바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高範圍理論으로서의 성격 을 점차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단 이러한 高範圍理論을 전제로 推論하고자 한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支配的 理論이라 할 때 그 理論은 어떻게 하여 형성되게 되는 것일까? 小은 패러다임을 대상의 선정, 평가 및 비판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相互 結合된 理論的 및 方法論的 信念의 어떤 默示的인 實體로 보아 이것 없이는 科學의 歷史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cf. [45] pp. 16-17) 이는 곧 定式化된 理論體系의 바탕에는 理論的 내지 方法論的 信念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信念이란 무엇인가? 信念(beliefs)이란 眞理(truth)로서 受諾되고 또한 강력한 事實이나 정보에 의해 支持받고 있는 先有傾向(predispositions)으로서 ([62] p. 161) 이는 느낌(feelings), 의견(opinion), 傾向(inclination) 및 偏向(biases) 등과 마찬가지로 態度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개념이다([39] pp. 9-10). 따라서 태도란 바로 先有傾向인데 이는 어떤 개인의 總體的인 價値體系(total value system)를 형성한다([62] p. 161). 價値(value)

란 존재하고 있는 어떤 人間 즉 認識主體의 主觀과 對象 즉 事實이라는 客觀의 世界사이의 關係의 상태를 말한다([19] p.152). 따라서 인식주체인 인간이 이러한 관계를 전체로 그 대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主觀的 認識作用이 價值判斷 내지 價值評價이며,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價值體系 내지 價值規範이다. 그런데 價值判斷 내지 價值評價란 有價值 및 無價値의 連續線上에 있는 價值範疇 속에 대상을 選別해 넣는 것이며 이때에는 特有的 價值意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치판단은 그가 가진 價值觀 즉 대상과의 관계를 전체로 인식되는 대상의 價値에 대한 믿음 내지 信念([8] p.164)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21] p.5).

이러한 여러 價值觀이 합쳐져서 고도로 構成化 내지 體系化된 것이 바로 思想 내지 이데올로기(ideology)⁽⁷⁾인데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의 價値를 긍정하고 그 바탕위에 구성된 意識 내지 信念이므로 이는 그 사람의 내부에서 비교적 고도로 체계화되어 行爲 내지 思考性면에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8] p.29).

그런데 思想이란 광의로는 일반적, 直觀的인 意識, 氣分, 傾向 및 常識을 뜻하나 협의로는 이의 中核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데 이는 自覺的·意識的으로 思惟의 反省을 거쳐 理念(philosophy)으로까지 嚴密化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는 思想의 周邊部를 형성한다([18] p.293).

思想의 內部構造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층이 있다(cf. ibid., p.3 序).

- ① 生活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아직 思想化되지 않은 氣分(mood)과 같은 下意識의 領域
- ② ①에서 昇華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斷片的이고 서로 모순되는 觀念의 累積의 영역
- ③ 예컨대 時代精神이나 世界像 또는 階級意識과 같이 어느 정도 整序化된 思考의 領域
- ④ 本來의 思想으로 볼 수 있는 思想의 純粹結晶인 學說·理論 및 教義 등

렌은 이러한 思想의 體系를 理念(philosophy)으로 보고 이의 역할은 知識을 秩序化하고 價値와 諸前提를 제공하여 認識論 즉, 우리는 어떻게 하여 대상을 알게 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解答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66] p.540) 이러한 견해는 바로 狹義의 思想의 體系化된 實體를 理念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일단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협의의 思想을 그대로 思想으로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쿤이 말한 바 理論的 내지 方法論的 信念으로서의 패러다임이란 바로 學問思想 내지 理念이며 이것이 形式論理性을 갖추어 외부로 表出된 형태를 理論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 이의 意味는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cf. [14] p.40).

그렇다면 社會科學上 패러다임에 대응되는 概念으로서의 領域假定이란 개념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일까?

글드너에 의하면 理論은 明示的으로 定式化된 假定(=公準)과 默示的인 假定 즉 背後假定(background assumptions)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배후가정이란 인간과 社會에 관한 準理論的인 信念의 集合(a subtheoretical set of beliefs)으로서 이는 理論의 明示的 定式化와 그 방법론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배후가정의 범위는 아주 넓고 多樣하여 저마다 다른 범위의 영역을 지배한다. 그것은 마치 거꾸로 세워진 圓錐모양으로 配列되어 있는데 가장 긴 圓周를 가지는 無限定的 背後假定 예컨대 世界假說이나 形而上學과 같은 것으로부터 適用範圍가 한정된 背後假定인 領域假定(domain assumptions)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배후가정은 研究者의 社會化的 初期過程에서 발전하여 그의 性格構造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情緒的인 認知道具인데 이는 그 연구자의 연구에 下部 내지 基礎構造(infrastructure)로서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背後假定을 識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cf. [31], [15] pp. 264-265).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패러다임을 理論的 내지 方法論的 信念의 相互結合으로 보는 쿤의 견해나 領域假定을 한정된 適用範圍를 가지는 準理論的인 信念의 集合으로 보는 글드너의 견해는 모두 價値觀을 형성하는 태도의 바탕이 되는 信念의 暗默的인 實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양개념의 本質은 동일하게 學問이라는 知識體系에 영향을 미치는 價値 및 價値觀의 集約形態인 思想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패러다임이나 領域假定은 모두 理論 그 자체이기 보다는 理論構築을 위한 기본적인 前提(=假定)가 되는 연구대상의 特定領域에 대한 共通의 이미지, 信念, 價値 또는 간략하게 표현하면 대상을 보는 方法 즉 觀點⁽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글드너의 견해처럼 반드시 그의 人生의 社會化的 초기과정에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人生의 어떤 時期에서 획득되었건 그 시기와는 관련없이 그의 연구 즉 理論構築상의 概念의 선택, 概念間關係의 定式化 및 概念測定의 方法論 등의 선택에 시종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어떠한 연구에서건 理論이나 知識體系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價値나 思想을 暗默的인 假定으로서 도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는 흔히 理論前提(theory premise)나 혹은 研究指向性(research orientation)으로 불리워지는 諸背後假定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8) 方法 및 觀點의 同一性에 대해서는 [1] p. 297 및 pp. 302-304 참조.

III. 經營學에 미친 價値 내지 思想의 影響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經營學상으로는 어떠한 價値 내지 思想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混亂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多樣性을 가진 經營學의 現狀을 露呈시키게 된 것일까? 經營學의 源流는 이의 母國으로 불리워지는 독일과 미국의 그것인데 이의 主流가 되는 經營分科學은 독일의 경우에는 經營經濟學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經營管理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方法論的 研究傾向이 강한 독일의 經營經濟學을 전제로 하여 研究者의 어떠한 價値 내지 思想이 그의 학문체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일찌기 독일경영경제학계의 최고의 두뇌로 불리워지는 셴프로그는 經營經濟學史의 연구상 學派分類를 하는 데 있어 그 分類의 기준을 價値나 思想의 表出形態인 各學說 내지 理論의 形式論理性이 아니라 각 학자가 가진 哲學 내지 形而上學과 관련되는 世界觀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1. 規範論的 個別經濟學(規範論學派—웨이, 디트리히, 닛크릿슈)
2. 經驗的·實在論的 個別經濟學
 - (1) 技術論學派~슈마렌바흐
 - (2) 理論學派~슈밋트, 리거

그는 選拔과 配列이라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選拔의 원칙은 경영경제학의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徵候를 가진 學說만 고찰한다는 것이며, 配列 原則은 그도 말하듯이 쾨발트가 「세가지의 國民經濟學」(〔54〕)에서 사용한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認識論的 基準 즉 認識目標의 공통성에 따라 배열·분류하는 것이다. 셴프로그는 “體系化를 위한 指導的 規範은 우리들의 個別科學(=專門科學)이 아니라 哲學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어떤 개별과학이 哲學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그것은 哲學과의 관련없이 論理的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고 그 까닭은 “個別經濟學의 研究에서 생기는 不一致나 方法論的 差異는 哲學상으로 서로 論爭이 벌어지는 世界觀상의 定理로 還元될 수 있으며 그 定理는 哲學상으로 수세기동안이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 영향은 어떤 個別科學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52〕 pp.64-65)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는 각 학자의 인식목표에 따라 “規範科學이나, 存在科學이나, 價値設定的 科學이나, 沒價値的 科學이나, 本質의 인식이나, 事實의 認識이나”(ibid., p.67)에 따라 전자

를 規範的 個別經濟學, 후자를 經驗的·實在論的 個別經濟學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그런데 經營經濟學의 연구상으로는 認識論的 基盤이 되는 世界觀 즉 價値나 思想이 미친 영향이 그 바탕이 되어 方法論爭이 여러차례 전개되었는데 그 바탕에는 바로 哲學的 對立이 있다고 한 퇴켈홀쯔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로덱키는 “모든 方法論的 標準規定, 모든 가치판단, 모든 個別科學的 研究상의 모든 術語는 世界觀의 展望에 따라 規定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개별과학의 論理와 體系는 얼마나 많이 그 世界觀的 範疇— 대체로 그것은 無意識的이지만—에 의해 規定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二元的 觀念論(理想主義)에 의해, 自然主義에 의해, 객관적인 觀念論에 의해, 主觀主義와 客觀主義에 의해, 合理主義와 非合理主義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51〕 p.769)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경영경제학은 어떠한 價値 내지 思想의 脈絡 위에서 그 認識論的 基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認識論上으로는 客觀主義와 主觀主義의 두가지의 思想이 대립하고 있다(cf. [12] p.2 및 p.7). 진자는 대상에 관한 지식체계는 바로 대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秩序이므로 이에 어떤 主觀的인 판단에 의한 무엇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후자는 인식주체의 對象構成作用을 중시하는 입장이므로 객체인 대상 그 자체는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는 混沌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어떤 方法 즉 觀點에 따라 고찰하는가 하는 考察方法을 대상 그 자체보다 더욱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經驗對象과 方法論的 觀點에 따라 파악되는 思考對象으로서의 認識對象으로 구분하여 후자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主觀主義에 속하는 主知主義的 認識論理의 대표적인 思想은 新칸트派의 인식논리이다. 이는 經驗的·觀念論的인 입장에 서는 것으로서 좁은 合理主義의 테두리를 설정하고 이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捨象하거나(〔3〕 p.15) 아니면 그것에 대해 假定을 하고 그 범위안에서 實證的인 학문의 형식으로 自足的인 體系化를 하게 되는 것이다(ibid., p.14).

經營經濟學의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新칸트派的 認識論理에 입각한 科學論이 그 바탕이 되어 왔었는데(〔23〕 p.83) 특히 私經濟學論爭으로 불리워지는 제 1次方法論爭시에는 新칸트派의 西南독일學派에 속하는 릿켈트의 科學理論을 쉘넛츠와 바이어만이 처음으로 도입하여 私經濟學의 科學化를 주장하였었다(cf. ibid., p.177). 오늘날 독일經營經濟學의 巨匠인 구텐베르그도 新칸트派의 思考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구텐베르그理論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이를 넘어서서 存在論的 思考를 전개하는 하이넨은 이러한 認識論

의 基盤에서 벗어나 “경영경제학의 경험대상 즉, 그 안에서 활동하는 人間이 있는 經營經濟는 결코 思考의 構成物은 아니다”(〔38〕 p.13)라고 하여 意思決定指向의 經營經濟學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17세기에 데카르트에 의해 비롯되어 과거 300여년간 西歐의 세계관을 지배하여 온 近代合理性主義에 입각한 分析論理도 경영경제학상 당연히 중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자연과학의 경우처럼 實驗에 의해 理論을 검증하기는 어렵고 단지 歷史的 經過를 거쳐 經驗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分析이나 抽象과 같은 방법이 더욱 중시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23〕 p.83).

데카르트는 첫째, “全體는 部分의 合”이라는 命題로서 近代世界에 宇宙의 성질과 그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公理를 제시하였고 둘째, 후일 計量的 論理의 확립에 이바지한 이 公理를 적용하여 지식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큰 공헌을 하였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200년 후의 물리학자 켈빈은 “나는 計測할 수 있는 것만을 알 따름”이라는 데카르트主義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主義는 바로 分析論理主義이며 이는 數理的 理性을 그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ibid., p.86). 그러므로 그의 世界觀은 機械論的 自然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그의 思想은 分析論理主義의 바탕이 된 要素還元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分析論理에 입각하는 主知主義的인 흐름이 침투하게 됨으로써 바로 分析論理에 입각하는 理論的 研究에 의존하여 경영경제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23〕 pp. 84-85).

독일경영경제학상 規範論者의 重鎮인 닛크릿슈의 認識論의 基底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思想이 있다고 한다(cf. 〔52〕 pp.194).

- ① 獨逸觀念論哲學
- ② 自然科學的 物質主義(唯物論)
- ③ 浪漫主義的 世界觀

셴프르그에 의하면 그는 理性에 절대적인 優位를 두어야 한다는 古典的인 理想主義者의 信念을 받아들여 人間을 良心을 바탕으로 하는 精神의 存在로 보고 人間의 自由를 物質에 對立시켜 人間을 物質에 대한 支配者로 定立시켰다(cf. ibid., p.193). 그러나 그는 그 당시 발전하게 된 自然科學的 唯物論의 영향을 받아 精神의 世界와 아울러 物質의 世界를 동시에 觀念論思想을 떠나 獨自의인 길을 걸어 精神과 自然의 綜合을 의도하는(cf. ibid., pp. 200-203) 二元主義의 입장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브렌게의 意識一元論的 組織觀도 아니고 보그다노프와 같은 自然一元論的 組織觀도 아닌 組織二元論的 立場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10] p.192). 그는 이러한 組織을 有機體로 보고 있는데 쉐프르그는 이러한 有機體理念과 普遍主義의 理念을 浪漫主義的 世界觀의 두가지 메르크말(標識, Merkmal)로 보아 닛크릿슈는 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cf. [52] pp.204-207). 그런데 쉐프르그는 有機體의 概念이 적용되는 어떠한 領域에 있어서도 그것은 全體主義觀을 반영하는 것이며(ibid., p.183) 普遍主義는 個人主義의 社會觀과 반대되는 共同體的 社會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功利主義的인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生成된 個人主義하에서는 全體의 개념에 이르기 위하여 原理的으로는 自立的이라고 생각되는 個別部分(個人)을 合算함으로써 機械論的으로 또한 이들 個人이 가진 自然的인 相互關聯性이 斷切된다는 의미에서 原子論的으로, 社會는 個別部分(個人)으로 解體되어 버릴 수 있다는 社會觀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原子論的 社會觀하에서는 이들 個人을 서로 관련지워주는 唯一의 基盤은 個人的 私利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cf. ibid., p.205).

쉐프르그는 二元論的 理念을 따르는 닛크릿슈의 세번째의 思想的 基盤을 全體主義的인 것으로 해석하려 하였으나 이에 입각하는 組織의 有機體觀이나 共同體觀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經營同僚體(Betriebspartnerschaft) 개념을 내세우는 핏셔의 경우에서처럼 “二元主義란 個人主義와 集團主義의 극단적인 면을 배제하고 肯定的인 측면을 연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를 따르면 개인은 개인으로서 尊重되나 반면 利己主義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集團主義를 따르면 개인은 共同體 내에서 비로소 生活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찰의 출발점으로 하지만 잘못하면 集團目的만 증시되어 全體主義로 빠질 위험이 있다. 二元主義에도 唯物主義的인 것과 人間中心的인 것의 두가지가 있다. 經營同僚體개념은 人間主義的 二元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人間主義的 集團主義가 共同體를 전제로 하여 개인을 고찰하는 데 대해 人間主義的 二元主義는 개인이 먼저 있고 個人이 없으면 共同體나 人間性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cf. [10] pp.205-206).

쉐프르그도 有機體觀을 全體主義觀으로 보되 “그것은 그 고찰의 중심점에 항상 人間을 두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有機體觀을 人間中心觀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그 人間은 個別的 存在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보다 高次의 共同體의 肢體로서의 人間이다”([52] pp.206-207) 라고 하여 이를 人間主義的 集團主義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닛크릿슈와 같이 二元論的인 입장에서 역시 有機體觀을 바탕으로 하는 핏셔는 앞서 본 바와 같은 人間主義的 二元主義를 個人主義와 集團主義에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 즉 個人

主義란 자신의 自我만을 생각하고 상호간의 生存競爭속에서 자신의 利害를 가능한 한 유리하게 貫徹하려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自由主義經濟體制하에서는 종래 경제 발전의 主軸을 資本으로 보았다. 따라서 노동자는 단순한 賃金費用要素에 지나지 않으며 資本에 있어서의 단순한 수단으로만 고찰되고 人間 및 그의 노동은 人間的 價値나 노동의 즐거움이나 보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金錢的 側面에서만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唯物主義的 自由經濟의 利己의 個人主義는 점차 人間主義的 個人主義로 대체되었다([10] p. 204).

人間主義的 個人主義하에서는 人間勞動은 자본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는 主體的 人間으로서 고찰된다. 핏서는 이 理念의 바탕에는 新自由主義가 있다고 본다. 유리한 勞動條件, 經營心理學的인 여러 措置 및 福利厚生에 주의가 기울어짐과 아울러 社會保障이 정비·확충된 결과 勞動能率이 한층 향상되고 노동자의 生活條件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져 人間다운 生活의 기초가 노동자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여전히 勞動能率 즉 生産性이 고찰의 중심이 되며 개인과 組織體로서의 經營(=企業)⁽⁹⁾ 사이의 永續的·精神的 結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cf. ditto).

이에 대해 集團主義는 不平等한 經濟力을 平等한 것으로 회복하려는 無產階層이나 社會的弱者가 集團으로 結束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며, 거기에서 社會主義가 생겨났다. 그러나 社會主義는 自由主義와 마찬가지로 唯物主義的 世界觀의 落胤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救濟받기 위해서는 集團에 結合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國家權力을 손에 넣고 經濟制度를 바꾸어 이를 통해 低賃金, 長期間勞動 및 劣惡한 勞動條件을 극복하려 하였다. 핏서는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소련의 社會主義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즉 거기서 노동자는 가능한 높은 國家給付와 國家權力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게 되고 인간은 전적으로 品位를 잃어버린 地位로 轉落하게 되며 全體를 강조함으로써 個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본다([10] p. 205).

이러한 극단적인 唯物主義的 集團主義도 人間主義的인 그것으로 점차 代替되어가고 있다. 사실상 國家는 人間을 보호하는 萬能藥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을 압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反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人間의 主體性의 회복을 위해 人間主義的 集團主義가 대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集團主義의 基本原理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핏서는 그가 주장하는 人間主義的 二元主義와는 다르다고 한다(cf. *ibid.*, p. 205).

이처럼 닉크릿슈에서 비롯되는 經營共同體論은 독일의 經營經濟學상의 하나의 特有的 思

(9) 傳統的 企業概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協同的 生産實體의 概念에 의한 것임([1] pp. 212-260 참조).

考傾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바로 二元主義的인 有機體觀에 입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닛크릿슈의 주장은 勞資同權의 共同體論으로서의 特質을 가지나 聃셔의 그것은 오히려 勞資의 對立을 배제하려는 經營共同體論이라 할 수 있다([10] p. 202).

독일경영경제학상으로는 두가지의 經驗主義的인 思想的 基盤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메레로비츠를 중심으로 하는 歸納을 바탕으로 하는 素朴實證主義 내지 素朴經驗主義의 경향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實用主義(pragmatism)의 독일의 流入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理論을 道具로 보는 道具主義的 科學觀의 입장에서 이론 그 자체를 위한 純粹한 認識만을 하는 經營經濟學은 무의미하며 그 목적은 實踐的 有用性에 있다고 하고 經營經濟學을 經驗科學으로 보아 그 본래의 方法은 歸納法이라 하였다. 이는 곧 여러 觀察로부터의 歸納에 의해 經驗的 假說에 이르므로 관찰이 인식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假說은 관찰을 계속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것이 되어 實證된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歸納主義는 반복적인 個別事例에서 앞으로의 事例를 확실히 또는 確率的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cf. ibid., pp. 101-102).

이에 대해 다른 하나는 구텐베르그에 의해 도입된 批判的 經驗主義 내지 批判的 合理主義의 傾向이다. 구텐베르그의 경영경제학의 연구는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메레로비츠와 같은 道具主義的 科學觀을 가졌으나, 제 2 단계인 1929년의 「經營經濟理論의 對象으로서의 企業」([34]) 이후부터 이러한 科學觀에서 벗어나 經營經濟學의 目的을 經營經濟의 規則性 내지 法則性의 探究에 두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理論은 마이헝거의인 「虛構」로 보는 경향이 강했었다. 그러나 제 3 단계인 1951년의 「經營經濟原理」([33]) 이후로는 약간의 傳統性은 그대로 계승되되 批判的 經驗主義의 方向으로 나아가 그의 저서는 經驗科學의 性格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cf. ibid., pp. 103-105).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의 方法論的 特質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보고 있다(ibid., p. 102).

- ① 價値自由(沒價値)的인 연구활동을 한다는 점
- ② 經驗·實在(現實)主義的 認識프로그램을 가졌다는 점
- ③ 純粹理論이 기초에 있다는 점
- ④ 法則定立的 科學을 지향한다는 점
- ⑤ 演繹的 方法을 따른다는 점

따라서 그는 理論主義的 科學觀으로 이름붙일 수 있는 科學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批判的 經驗主義 내지 批判的 合理主義란 歸納主義에 입각하는 經驗主義에 대한 反論으로서 성립된 것인데 흔히 假說主義, 演繹主義, 排除主義 또는 可謬主義라는 이름

으로도 불리워진다. 이의 主唱者인 포퍼는 素朴經驗主義가 취하는 反復에 의한 歸納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일종의 光學的 錯覺과 같다고 본다. 왜냐하면 一見 반복적인 事例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러한 觀察에 앞서 觀察 그 자체에 關心이 喚起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즉 그는 먼저 問題意識 즉 假說을 가져야만 비로소 反復의인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科學이란 假說을 제시하고 그것을 批判的 또한 合理的인 議論에 맡김으로써 다시 말하면 理論의 提示와 그에 대한 反證에 의해 배제당하는 것과 같은 試行錯誤의 과정에 의해 진보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10] p. 102).

그런데 독일경영경제학상으로는 第1次 方法論爭 이후 經營經濟學의 이름아래 道具主義的 科學觀을 따르는 素朴經驗主義에 입각하는 技術論이 지배적이었고 戰時중에는 나찌스政權에 의해 御用化된 全體主義的인 規範論에 밀려서 迫害를 받았던 技術論이 다시 복귀하여 戰後의 西獨經濟의 復興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슈마렌바흐學派로도 불리워지는 이들 技術論學派는 그 學問的 根底에 理論的 基盤이 없고 더구나 그 지식체계에서는 市場이 무시되고 있다는 이유때문에 理論學派를 標榜하는 리거學派에 의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경향이 오래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에 구텐베르그의 著述이 나오자 이 학파는 크게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同書의 발행으로 技術論的 經營學의 理論的 脆弱性이 크로즈업되었고 또한 리거學派도 技術論學派의 공격에 始終하다 보니 自體의 理論形成의 가능성을 놓쳐버려 마침내 理論學派의 王座를 구텐베르그에 물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29] pp. 567-568 譯者後文).

이에 에 의하면 구텐베르그의 업적은 독일경영경제학상 많은 信奉者集團을 형성할 정도로 독특한 것으로서 “그의 방대한 生産理論과 費用理論은 고도의 패러다임”([40] p. 76)으로 평가될 정도로서 그는 메레로비츠를 중심으로 한 自然法則的인 費用法則과 自由經濟의 崩壞論을 주장하는 傳統的 經營經濟學派와 方法論爭 및 費用論爭을 거듭하여 이를 論破함으로써([5] p. 2) 理論學派의 승리를 거두어 소위 구텐베르그學派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텐베르그學派의 理論內容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29] p. 568 譯者後文).

- ① 經營經濟學내에 微視的인 近代經濟學의 手法를 導入하였다.
- ② 이에 의해 經營經濟學上 數理學派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구텐베르그는 微視經濟學的인 分析方法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그의 연구는 微視經濟學이 가진 假定을 그대로 그의 理論前提로 삼게 되어 사실상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經濟學的 方法論的인 認識論的 基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

첫째, 實證 내지 經驗主義의 경향을 가지는 分析論理는 數學이나 論理 등과 같은 形式論理的 嚴密性을 강조하고 따라서 形而上學的 命題인 價値判斷은 배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價値自由性(沒價値性)을 주장하는 웨버리즘(Weberism)을 따르는 경향인데 이 입장에서는 價値란 形而上學的인 것이거나 혹은 개인의 嗜好에 따른 情緒的인 것이므로 哲學이 다룰 命題는 아닌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哲學이란 올바른 價値觀의 追求를 위한 것이었으나 分析哲學이 대두하여 이에 대한 關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哲學은 事物의 原理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事實로서 주어진 命題를 經驗的으로 분석하고 形式論理的 整合性만을 존중하는 것으로 倭少化되었다. 價値判斷을 배제하면 行爲에 대한 책임도 없고 다만 주어진 命題를 科學的으로 分析만 하면 충분하다. 그 결과 이를 따르는 經濟學의 方法論도 20세기에 이르러 價値判斷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經濟社會의 原則的이고 動態的인 理論의 追求는 止揚하고 統計的 數值的 整合性속에 埋沒되어 버렸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cf. [8] pp. 93-94).

이와 같이 구텐베르크學派는 數理學派로서의 理論內容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것이 經濟學的方法論이 받는 것과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는 微視經濟學의 假定과 마찬가지로 資本主義的인 經濟體制觀을 전제로 企業을 資本家個人的 延長形態로 봄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經濟學상의 傳統的인 企業概念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오늘날의 西獨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勞資同權的인 思想에 입각하는 共同決定企業에 대한 고찰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25] p. 4).

셋째, 구텐베르크의 이론은 要素投入과 要素產出의 生産性關係를 問題意識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① 그가 經濟學研究에서 출발하였고 ② 生産性關係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學의 研究는 社會學이나 社會心理學의 研究에 비해 그 진보를 측정하기 쉬웠고 또한 연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후자의 傾向은 그 展開나 體系化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③ 제 2차 세계대전후 서독에서는 企業의 生産性向上이 국민경제상 急先務이었기 때문이라 한다([10] pp. 122-123).

따라서 그의 패러다임은 서독에서 진전된 企業民主化와 人間尊重思想의 進展에 따라 人間中心的 觀點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으로써 危機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그가 人間勞動을 生産要素로서 다룸으로써 捨象하여 버린 人間問題의 고찰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人間을 經營經濟의 중심에 두어 意思決定指向的 經營經濟學을 전개하는 하이넨은 人間만을 출발점으로 하는 研究傾向과 生産性關係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研究傾向을 각각

正 즉 테제(These)와 反 즉 안티테제(Antithese)로 대립시키고 “그것은 합 즉 진테제(Synthese)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37] p.208)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經濟學的方法論에 입각하는 구텐베르그體系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제, 그는 沒價值的 내지 價值自由的인 理論主義的 傾向을 指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最適化處方=合理性原理의 適用은 企業에 固有한 것이며 그것을 規範的인 것이 아니라 價值自由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심지어는 企業의 定義에서 研究者의 行動規範까지 誘導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新規範主義의 입장으로부터 그의 批判的 經驗主義的인 方向까지도 否定하는 형식으로 비판을 받게끔 하였었다. 이는 곧 그 자신이 理論과 實踐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劃定을 하지 못하고 傳統性이나 애매함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기 때문인데([10] pp.106-107) 그것은 곧 獨逸經營經濟學이 전통적으로 가지는 實踐規範性을 思考上 단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뵘에는 “구텐베르그體系는 과거와 완전히 斷切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方法論的 觀點에서는 리거나 슈마렌바흐의 見解와의 結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65] p.719).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學問의 認識目標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價值觀 내지 思想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독일의 경영경제학상으로는 여러차례의 方法論爭⁽¹⁰⁾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方法論에 대한 論議는 기본적으로 經營經濟學的 研究의 價值自由性(沒價值性)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4] p.4) 그것은 바로 價值判斷을 둘러싼 價值論爭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經營經濟學상의 價值判斷과 관련되는 문제의 脈絡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18년과 1928년에 각각 전개된 私經濟學論爭으로 불리워지는 第1次方法論爭 및 第2次方法論爭상의 論議로서 여기서는 經營經濟學의 國民經濟學에의 依存性의 문제, 利潤學的인 성격 및 理論科學과 技術論이라는 세가지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쟁은 바이어만, 쉐넛츠, 슈마렌바흐 및 리거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ibid., pp.5-6).

둘째는 1950년대에 카인홀스트, 목스퍼 및 뵘 등에 의해 제기된 科學性概念을 둘러싼 問題意識으로서 第3次方法論爭의 爭點이었는데 이는 價值判斷이 科學的으로 그 根據를 定礎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세째는 科學論의 變貌 및 實證主義論爭과 相互關聯하여 1970년대에 전개된 社會經濟的 生活의 形成에 관한 價值付着的 科學言明과 관련되는 문제의식으로서 이는 알버트 및 샬프 등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4] p.5).

(10)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1] 第1章 第2節 참조.

뵈에는 價値判斷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65], [4] pp.7-8).

① 眞正 또는 第1義的 價値判斷~그 자체내에서 對象에 價値가 부여되거나 또는 대상에 價値가 認知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판단으로서 예컨대 收益分配의 特정의 方法이 非社會的이라든가 또는 이 賃金이 公正하다고 하는 가치판단이 이에 해당한다.

② 第2義的 價値判斷~目的-手段關係라고 하는 價値關係가 이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주어진 目的 A는 處置 B를 통해 달성된다고 할 때의 가치판단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바로 因果律의 倒置이다.

그는 후자를 전제로 하여 經營經濟學의 이러한 傾向을 따르는 選擇處理는 하나의 實踐的 規範이며 極大利潤을 추구하는 노력과 같이 經驗的으로 確定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規範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컨대 슈바렌바흐와 같이 이러한 傾向을 가지는 經營經濟學을 實踐-規範的 學問이라 하고 닛크릿슈와 같이 第1義的 價値判斷에 입각하는 그것을 規範-價値判斷的 經營經濟學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후자의 특징을 실제상으로 追求되고 있는 目標를 問題選擇의 規範으로 高次化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이 追求하지 않으면 안되는 目標 그 자체를 設定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연구경향을 가지는 경영경제학을 發展史的으로 보아 規範獲得의 方法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4] p.10).

① 닛크릿슈와 그 信奉者~여기서는 인간의 永遠的 價値, 共同體 및 收益分配 등을 문제 삼는다.

② 칼베람~여기서는 企業家의 行動에 대한 規範을 基督敎的 社會論에서 誘導한다.

③ 新規範的 傾向의 少壯學者~경영경제학의 연구성과가 企業家⁽¹¹⁾에게는 富, 다른 인간에게는 權力의 증대를 위해 자유로이 사용되게끔 하지 않고 支配的인 資本主義秩序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현존하는 經濟體制나 社會體制를 批判的으로 분석하여 經濟的 作用뿐만 아니라 經營的 意思決定의 社會政策的 歸結을 일정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肯定的 또는 否定的으로 판단·평가하는 것이다. 뵈에는 이러한 연구경향은 예컨대 뢰펠홀쯔나 하제낙 크처림 경영경제학은 대상을 단순히 社會學的 傾向을 따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경제학을 政治科學(politische Wissenschaft)化하려는 노력으로 본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세가지의 規範-價値判斷的 經營經濟學의 공통성을 “이러한 연구경향은 일정한 價値體系 즉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립하여 있는 經濟秩序에 따라 制約된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行動을 또한 그 秩序에 따라 歷史的으로 발생한 經濟構造를 비판하

(11) 資本所有者와 同意임.

고 나아가서 그 변화를 지향하여 노력한다는 점”([65] p.739)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자신이 입각하는 價値自由性의 입장에서의 實踐—規範的 經營經濟學은 이러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檢證可能性이 있는 科學的 認識과 研究者가 그 倫理的, 社會的 및 政治的 觀念 즉, 그 價値體系를 따르는 個人的 信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價値中立性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 웨에는 收(利)益性原理를 現體制下의 經濟에 있어 이를 所與의 것으로 보아 그것을 바로 價値自由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바로 價値自由科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批判的 機能을 잃게끔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經營經濟學상의 利益과 企業家의 利益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반면 이는 노동자의 이익도 價値自由的으로 취급할 수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p.15). 사실상 이러한 의미에서의 價値自由는 傍觀者나 中立者의 觀點이며 그 자신이 아픔과 苦痛을 느끼지 않는 醫師가 아픔과 苦痛을 느끼는 患者를 보는 人間對立觀의 觀點이며 동시에 그것은 體制關聯의인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일경영경제학의 경우 1950년대 말기에 이르러 종래의 비교적 固有的 方法論에 따른 自主的인 研究展開의 경향은 포기하게 되고 그 후에 分析的 科學理論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50] p.178). 종래의 經營經濟學의 認識論은 古典的 認識論의 두가지 主流인 潮流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즉 스피노자, 데카르트, 라브라아스, 라이프니츠 및 흄브스 등에 의해 전개된 理性을 唯一의 가능한 認識의 원천으로 보는 古典的 理性主義 내지 古典的 合理主義와 베이컨, 비크리, 록크, 흄 및 밀 등에 의해 전개된 古典的 經驗主義(cf. ibid., pp. 11-14)를 바탕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 받아들여진 分析的 科學理論은 어느 의미에서 이들 두가지 主流의 古典的 認識論의 部分的 合 즉 부분적인 進提제(Synthese)로서 성립된 認識論으로서 이는 確實性이나 궁극적인 認識論的 確信에 이르는 것을 意識的으로 斷念하는 科學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科學論의 原理는 理論이 영원한 破滅의 위험과 反駁에 露出되게끔 定式化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理論이 정말 적절한가 아니면 修正되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실세계의 判決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는 眞理란 기껏해야 間接的, 近似的인 방식으로 實在(現實)에 비추어 파악할 수 밖에 없다고 보게 되는데(cf. ibid., pp. 23-24) 이는 자칫하면 現實 즉 存在의 合理化의 誤謬를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多數의 虛構性(majority fallacy)에 입각한 獨斷的인 判斷을 하기 쉽다. 이러한 科學理論은 自然科學的 패러다임을 강하게 지향하는 것인데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言明領域에 있어서의 價

價値判斷을 금하는 價値自由의 원리라는 의미로서의 價値自由 즉 價値判斷에 사로 잡히지 않는 科學으로서 經營經濟學을 이해하고 전개하게끔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에서는 價値(規範, 目標)는 단순한 主觀的인 價値判斷으로 看做되고 따라서 規範 즉 價値의 正當化를 지향하는 論議는 이에서 배제되게 된다. 따라서 合理的이고 間主觀的으로 이루어지는 論證과 이에 따른 主張은 論理的一數理的 定式科學 및 經驗的一分析的 實在科學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게 된다. 價値判斷은 論理的 推論만으로 正當化할 수는 없으며 또한 事實言明으로부터 導出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은 必然的으로 科學的 制約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客觀性에 대한 自覺을 요구하는 과학은 價値自由原理를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cf. [50] p.178). 그러나 이러한 價値自由原理를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cf. ibid., pp.179-180).

첫째, 이는 經營經濟學의 實踐에 제약을 가하는데 일면에서는 葛藤的인 目的에 관한 意思決定문제는 그 對象領域에서 배제되어(cf. ibid., p.179) 결과적으로는 目標과 관련되는 規範의 問題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所與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方案과 관련된 技術的 問題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따름이다.

이와 같은 實踐의 兩分化는 아펠이 주장한 바 逆說的 狀況의 永續化를 촉구하게 된다(cf. [26] p.359ff). 이는 곧 科學文明의 錯綜性에 입각하여 또한 고도로 발달한 工業生産의 광범한 作用·副作用 때문에 經濟的, 社會的 行爲의 目標을 일반적으로 定立하고 科學的으로 正當化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支配的인 科學理論을 따르면 이러한 正當化는 主觀的이며 결국 非合理的인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수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價値自由的 經營經濟學은 [第1義的 價値判斷의 배제때문에]⁽¹³⁾ 바로 오늘날의 歷史的 狀況에서 科學的 助言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도 결국 實踐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cf. [50] pp.179-181).

둘째, 價値自由라고 하는 方法的 原理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의 價値判斷이 된다. 왜냐하면 이를 受諾하는 것은 바로 基礎領域에 있어서의 價値判斷 즉 領域假定을 하는 것이며 이는 이 원리에서 導出되는 기타의 모든 가치판단과 아울러 모든 個個의 학자의 自由로운 主觀에 맡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價値自由的 經營經濟學의 規範의 背景은 方法的으로는 明示되지 않으며 그 定礎作業은 間主觀的으로 구속받지 않고 다만 그가 支持하는 信條 즉 價値나 思想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科學상에 있어서의 合理性을 전제로 할 때 價値自由를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은 非合理的일 수 밖에

(12) 論者의 插入分項.

없으며 기본적인 價値判斷이 개개의 學者의 主觀에 맡겨짐으로써 생기는 歸結은 결과적으로 科學實踐이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도 義務化되지 않으며 또한 의무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cf. [50] p. 180).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價値判斷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것이며 沒價値的인 理論主義的 科學觀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바로 하나의 價値判斷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슈테레는 “經營經濟學의 選擇原理를 經濟性原則으로 결정함으로써 一義的인 價値判斷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55] p. 192)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결국 經營學이라는 하나의 知識體系 특히 독일경영학의 主流인 경영경제학은 결국 그 학문을 研究하는 학자의 主觀 즉 價値나 思想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經營學의 源流로 불리워지는 美國經營學의 경우에는 어떠한 價値와 思想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紙面의 制約상 그 主流인 經營管理學을 중심으로 警見키로 한다.

티렛트는 19세기의 미국의 經營管理學의 이데올로기의 偏向性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59] p. 39).

- ① 社會進化論
- ② 大衆主義(popularism)
- ③ 個人主義(individualism)
- ④ 實用主義(pragmatism)

個人主義的 理念은 개인의 個性(個人的 性格)을 강조하였고 知性이나 教育보다 더 높이 評價되었다. 이와 관련시켜 個人的 經驗이 강조되고 직접적인 用途가 없었던 教育이나 學習에 대한 否定的인 태도가 형성되었다. 카네기는 教育이 “...잘못된 생각을...그리고 實地의 生活에 대한 嫌惡”를 낳게 하고 있다고 보았을 정도였다(cf. [41] p. 86). 이러한 思想的 基盤이 미국의 經營學을 經驗主義的 傾向을 가지게 하였음은 당연하다.

미국특유의 思想的 基盤이라 할 수 있는 實用主義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2] p. 373).

- ① 科學을 形而上學的으로 中立的인 것으로 본다.
- ② 哲學을 世界觀보다는 오히려 多元的인 方法論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방법론에서는 經驗論의 전통을 이어받아 進化論의 영향하에 經驗을 環境에의 適應으로 能動化시킨다.

④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觀念이나 信念은 行動을 위한 規則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이끄는 行動상의 有效性에 따라 그것은 評價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思想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22] pp.144-145).

- ① 經驗主義의 입장을 따른다.
- ② 功利主義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 ③ 실제적인 效果나 效用을 지향하는 近代의 技術論的 思考方式을 體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實用主義 특히 鄧이의 道具主義(instrumentalism)하에서는 觀念이나 思想은 人間이라는 生物이 자연이나 사회라는 環境을 보다 좋은 것으로 改變하기 위한 手段 내지 道具로 보게 되며 따라서 이는 道具主義的 科學觀을 취하며 궁극적으로는 唯物論的 自然主義와 통하게 된다(cf. [1] p.138).

화이트헤드는 近代産業社會에 있어 대규모기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원래 社會的 統合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리더(leader)와 技術的 能率을 지향하는 組織者로서의 經營者가 分化하게 되었는데 후자는 經濟的 目的만 추종하여 본래의 리더쉽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궁극적으로 대차대조표가 黑字이기만 하면 만족하게 되나 이 때문에 그 자신은 그들 부하와 동일한 집단의 一員이 될 수 없게 되고 그들 부하는 그들이 정한 非公式의 리더에 의해 통솔되게 되며 企業社會내에서는 심지어 敵對感情까지 생기게 되어 社會的 安定이 파괴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단순한 리더의 保守性과 근대의 經營者의 進歩性, 社會的 安定과 經濟的 進歩의 矛盾·對立을 經營者側의 社會意識의 自覺적 리더쉽機能의 自覺的 遂行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社會的 統合을 이룩하여야만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cf. [64], [17] pp.115-123).

이러한 그의 思想的 背景에는 進歩主義였던 그의 스승 메이요와 마찬가지로 社會進化思想을 전제로 하는 社會進化論的인 기반을 엿볼 수 있으며 그의 주장은 그가 바라는 理想的 社會에 이르기 위한 民主主義的 方法論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ibid., p.126).

데이비스는 미국의 經營管理思想의 諸前提는 私的 資本主義에 입각하고 있으며 認識論은 科學的 管理의 精神이라 하고 있다([28] pp.4-7).

그라스는 經營管理史研究의 입장에서 企業(business)의 成立을 전제로 하여 資本主義를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다([32], [11] p.234).

- (1) 前企業資本主義時代(pre-business capitalism)
 - ① 採取經濟(collective economy)
 - ② 農牧遊動經濟(cultural nomadic economy)

- ③ 定住村落經濟(settled village economy)
- (2) 企業資本主義時代(business capitalism)

- ① 小資本主義(petty capitalism)
- ② 商業資本主義(mercantile capitalism)
- ③ 工(産)業資本主義(industrial capitalism)
- ④ 金融資本主義(financial capitalism)
- ⑤ 國家資本主義(national capitalism)

- (3) 公企業資本主義時代(public business capitalism)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私企業資本主義(private business capitalism)로부터 公企業資本主義로의 移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따를 때 經營管理論은 그 당시의 時點에서 가장 우세한 工(産)業資本主義하의 私企業을 그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을 示唆하여주는데 이는 곧 實用主義的 觀點에서는 그 效果가 바로 나타나는 現時點의 分析(contemporary analysis)을 주로 하게 되고 이 때문에 公企業은 捨象하게 됨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科學的 管理의 精神은 어떠한 價値 내지 思想的 基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 경영관리론의 始祖로 불리워지는 테일러의 世界觀 내지 價値觀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즉 곰버그에 의하면 테일러는 機械論的·決定論的 世界像을 전제로 時間研究를 전개하였으므로 그의 經營管理論은 機械論的인 성격을 가졌다고 지적되고 있다([30] p.246). 이에서 우리는 그의 自然主義的 世界觀을 엿볼 수 있다.

테일러는 科學的 管理의 중심이 되는 時間研究와 관련하여 團體交涉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團體交涉의 無用論 내지 否定論의 근거의 하나는 時間研究技術의 科學的 妥當性에 관한 그의 獨斷的인 主張에 由來하는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그에 게 있어 課業, 보다 엄밀히는 個個의 作業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許容되어야만 할 標準作業時間은 去來나 交涉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科學的 研究의 문제였다(cf. [57] pp.142-143, [16] p.201). 이는 곧 그가 近代이후의 科學主義의 洗腦를 강하게 받았음을 示唆하는 것이고 근대 이후의 科學主義(scientism)란 흔히 科學的 方法으로 誤解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社會科學者에 의한 [自然]科學의 方法과 言語의 隸屬的 模倣(slavish imitation)을 뜻하였었다(cf. [49] p.185 footnote 35). 近代主義로도 불리워지는 이것은 近代諸分科學의 根底에 깔려 있는 思想으로서 그것은 近代科學의 價値意識, 發想根據, 分析方法 및 敘述形態 貫流하고 있는 思想이다([9] p.22, [7] p.112). 이 입장은 客觀主義, 實證主義 및 合理主

義를 따르며 經驗論的·歸納的 方法에 의존하여 原子論的·要素還元論的으로 대상의 레벨을 각각 단절하여 分析하게 된다([9] p. 27, p. 55, p. 61, p. 164). 이러한 입장에서는 人間도 自然的인 대상으로 취급되어 그 主體性은 捨象되고 物化·對象化되므로(ibid., p. 23)에 입각하는 科學觀은 대상을 觀察 또는 操作되는 것으로 보는 用具主義的인 것이 된다.

따라서 이의 가장 기본적인 결함은 認識主體에 대해서는 觀念論, 인식대상에 대해서는 經驗論이 적용된다는 점이다(ibid., p. 54). 이러한 인식론이 바로 新칸트派的 認識論理이며 이의 徹底化가 어느 의미에서 實用主義인 것이다. 이러한 用具主義的 方法을 따르면 人間은 불가피하게 手段視된다.

부트는 독일경영경제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었다. 즉 “經營經濟學理論은 經濟를 營爲하는 자는 人間이라는 事實을 論及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思考의 脈絡상의 출발점과 중심점으로 하여 高次化하면 人間中心的(anthropozentisch)이 된다”([27] p. 549)고 하였다. 이에서 미루어 보면 科學的 管理상으로는 用具主義的 方法論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렌도 테일러 이래의 科學的 管理는 우리들의 生活樣式으로서 무엇에건 科學이라는 것을 重視하려고 하였던 한 時代의 產物로서 生成발전되어 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도 科學的 吟味가 필요하다는 信條가 여러 분야에 퍼지게 되어 종래 因襲의이고 直觀的이어서 擬似科學的인 성격을 가졌던 諸分科學으로 하여금 보다 經驗的이며 合理的인 基盤에 입각하는 것으로 전환시켜 갔다”([66] p. 247)고 하여 近代科學主義가 지배적이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일러가 주장한 科學的 管理의 冷酷性과 非人間性이 지적되어 왔었는데(ibid., p. 177) 이는 바로 그가 가진 科學主義에 입각한 機械論的 世界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렌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테일러는 人間的 要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는 人間의 集團的 側面이 아닌 個人을 강조한 것이라고 변호하고 있다(ibid., p. 180). 그런데 이는 바로 近代科學主義의 바탕에 個體論的 發想의 근거가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이 그로 하여금 人間集團간의 力動的 關係라는 團體交涉의 側面을 捨象하게끔 한 一因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다른 한편에서 테일러는 管理技師의 準據體系(management engineers' frame of reference)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團體交涉無用論 내지 否定論을 펴게 되었다고도 한다([48] p. 153). 이는 곧 自由職業으로서의 顧問技師의 專門職業的 意識(professionalism)인데 테일러는 勞使雙方에 專門職으로서의 管理技師의 리더쉽의 承認을 강하게 요구하였었다(cf. [58] pp. 186-187). 그것은 곧 “會社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行動하지 않으면 안된다”(cf. [16] p.

202)라고 한 그의 顧問契約條項에 미루어 그는 勞使와는 다른 中立的 立場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가 實用主義 내지 科學主義에 입각한 中立的 내지 主知主義의 理念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認識主體의 대상과의 對立性 내지 인식주체의 優位性과 獨立性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헤이버는 社會思想史의 관점에서 科學的 管理의 論理의 배후에 있는 起動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cf. [35] p.3).

- ① 테일러의 性格
- ② 테일러가 맡은 教育和 社會教育
- ③ 테일러 자신이 몸담았던 機械工學的 職業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테일러가 가지고 있었던 世界觀 즉 價値 내지 思想이 그의 價値내지 思想의 表出形態인 科學的 管理라는 知識體系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言

이상에서 우리는 經營學의 源流가 되는 독일 및 미국경영학에 研究者가 가진 價値와 思想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았다.

사실상 價値判斷과 관련되는 문제는 經營經濟理論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나([4] p.5) 오늘날의 經營學의 現狀을 파악하는데 있어 理論前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연구자의 科學 내지 學問에 대한 價値觀의 集約인 思想이 그가 형성·발전시킨 知識體系로서의 經營學體系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研究者의 主觀으로서 각자의 性格이나 嗜好 내지 先有傾向에 따라 恣意的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方法 내지 觀點의 多樣性이 생겨 學問 내지 科學의 分岐化 내지 多樣性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支配的인 學問 내지 科學思想은 앞에서 보았듯이 唯物的·自然科學的 世界觀을 바탕으로 主客의 對立觀을 전제로 對象을 物化하고 이를 個體論的·要素還元的으로 分析하는 近代科學主義이다.

이러한 近代科學主義에 따른 學問發展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學問思想을 따른 學問의 지나친 分化는 결국 綜合的 存在實體인 대상에 대한 斷片的·部分的 認識만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統合的·綜合的 認識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學問의 窮極

的 目的인 實踐에의 貢獻을 弱화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學問分化和 이에 따른 多樣性を 전제로 하는 經營學의 現狀을 混亂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知的 分業으로 볼 것인가 하는 價値判斷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現狀을 肯定的으로 본다면 學問分化的 根源에 대한 探索은 헛된 일이기 쉽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專門閉塞의인 分科學의 研究成果만을 쌓이게 하여 專門科學者는 오르레가 ·이· 가제트의 말처럼 “綜合은 잊고 分析에만 치중하는 有識한 無識者”가 되기 쉬우며 마침내는 보울딩의 憂慮처럼 “저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말로 혼자말을 중얼거리면서 세상(現實)과 등지고 살아가는 隱者들의 집단속에서 學問研究가 停止하게 되지는 않을까?”

일찌기 웨버는 오늘날의 인간을 “精神(魂, Geist)이 없는 專門人, 心情(마음, Herz)이 없는 享樂人”으로 比喩하였었다. 정신이 없는 專門人이란 뭔가 스스로 열심히 [部分的인]⁽¹³⁾ 전문적인 일에 沒頭하고 있으나 그 일이 全體내에 있어 또는 人類의 運命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였는데 우리가 知的 營爲로서의 學問을 하거나 이의 集約으로서의 知的行動을 할 때 [全體와의 關係하에 未來指向的인 觀點에서 部分을 볼 줄 아는]⁽¹⁴⁾ 精神을 가지지 못한 專門人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經營學은 그 연구대상인 存在實體로서의 企業에 대한 知的인 經營管理를 위한 理解, 說明, 豫測 및 制御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체계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는 곧 經營學이 단순히 回顧的인 의미에서 歷史的 存在로서의 企業을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을 豫測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未來의 目的 즉 價値나 理想의 실현을 위해 有效한 制御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規範論的인 實踐科學的 知識體系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오늘날의 여러 分科學의 統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¹⁵⁾ 이를 위하여는 科學的 方法의 統一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方法 즉 觀點의 統合의 필요성을 示唆하는 것이라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觀點의 統合을 위해서는 바로 이의 바탕이 되는 價値觀 및 이의 集約인 思想의 統合의 可能性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觀點의 分岐에 따른 學問의 分化的 價値 내지 思想의 分岐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觀點의 統合을 위해서는 이의 分岐의 根源이 된 價値 내지 思想의 分岐의 뿌리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研究者가 가진 價値나 思想은 바로 그들의 學問研究의 패러다임, 領域假定을 포함하는 假背後定 즉 理論

(13) []는 筆者의 挿入分임.

(14) 上同.

(15) 이에 대해서는 [1] 第9章 참조.

前提로서 그들의 學問 내지 科學 즉 知識體系의 틀 내지 테두리를 暗默的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저마다 대상을 인식하여 그들의 學說을 형성하였던 여러 學者의 學問思想的 基盤을 파헤쳐 보고 거기에서 價値 및 思想의 分岐의 가능성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經營學史의 研究는 단순히 그 學者의 思想의 形式論理的 整合性的 表出形態인 理論의 構造나 內容의 탐색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表出形態의 근원인 그들의 經營學思想的 基盤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經營學史는 經營學思想史로서도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金元銖, 理論經營學, 1982.
- [2] 鮎澤成男他, 經營學史, 1972.
- [3] 生松敬三, 木田元, 理性의 運命—現代哲學의 岐路—, 1976.
- [4] 市原季一先生追悼記念事業會編, ドイツ經營學研究, 1981.
- [5] 市原季一, 經營學論考, 1975.
- [6] 岡田正也他, ドイツ經營學入門, 1980.
- [7] 大江一道, 歴史を見直す —世界は良くなっているか?—, 1976.
- [8] 加藤正見, 價値의 研究, 1971.
- [9] 北澤方邦, 構造主義, 1968.
- [10] 北野利信編, 經營學說入門, 1977.
- [11] 經營學研究 group, 經營學史, 1972.
- [12] 酒井正三郎, 經營學方法論, 1966.
- [13] 坂本藤良, 現代經營者の 意識と 行動, 1979.
- [14] 述村明, ideologie を 超えて, 1971.
- [15] 南山大學經濟經營學會編, 經營學 Guidebook, 1979.
- [16] 日本經濟學會編, 經營と 環境, 經營學論集, 43, 1973.
- [17] 古川榮一, 高宮晋編, 經營管理의 理論と方式, 1956.
- [18] 藁富吉, 日本經營思想史 —戰時體制期の 經營學—, 1983.
- [19] 牧口常三郎, 價値論, 1979.

- [20] 村上陽一郎, 近代科學を 超えて, 1974.
- [21] 村上陽一郎, 西歐近代科學, 1971.
- [22] 小崎正一, 人間思想の 歩み, 1972.
- [23] 山本安次郎, 經營學研究方法論, 1975.
- [24] 山本安次郎, 經營學說, 1970.
- [25] Ackermann, K.F., *Arbeitnehmerinteressen in der betriebswirtschaftlichen Theorie; Analyse der Arbeitsorientierten Einzelwirtschaftslehre*, 1974.
- [26] Apel, K.O., "Das Apriori 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und die Grundlagen der Ethik," in Apel, K.O., *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 BD. II, 1973.
- [27] Buth, W., "Das Problem einer antropozentischen Betriebswirtschaftslehre," *ZfB.*, 36 Jahrg., 1966.
- [28] Davis, R.C., "F.W. Taylor and the American Philosophy. of Management," *Advanced Management*, Vol. 24, No. 4, Dec., 1959.
- [29] Fischer, G.,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8 Aufl., 1957.
- [30] Gomberg, W., *A Trade Union Analysis of Time Study*, 1948, (2nd ed., 1955).
- [31] Gouldner, A.W.,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Basic Books, 1970.
- [32] Gras, N.S.B., *Business and Capitalism—An Introduction to Business History—*, 1939.
- [33] Gutenberg, E.,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BD. 1, *Die Produktion*, 2 Aufl., 1955.
- [34] Gutenberg, E., *Unternehmung als Gegenstand betriebswirtschaftlicher Theorie*, 1929.
- [35] Haber, S., *Efficiency and Uplift: Scientific Management in Progressive Era*, 1890~1920, 1964.
- [36] Hage, J., *Techniques and Problems of Theory Construction in Sociology*, 1972. (同日譯書)
- [37] Heinen, E., "Zum Wissenschafts Programm der entscheidungsorientierten Betriebswirtschaftslehre", *ZfB.*, 39 Jahrg., Heft 4, 1969).
- [38] Heinen, E., *Einführung in die Betriebswirtschaftslehre*, 1968.
- [39] Hughes, G.D., *Attitude Measurement for Marketing Strategies*, 1971.
- [40] Jehle, E., *Über Fortschritt und Fortschrittskriterien in betriebswirtschaftlichen Theorien, Eine Erkenntnis und Methodenkritische Bestaundsaufnahme betriebswirts-*

chaftlicher Forschungs Programme, 1973.

- [41] Kirkland, E., *Dream and Thought in the Business Community*, 1860~1900, 1956.
- [42] Koontz, H., (ed.), *Toward A Unified Theory of Management*, 1964.
- [43] Koontz, H., "Making Sense of Management Theory," *Harvard Business Review*, Vol. 40, No. 4, July-Aug., 1962.
- [44] Koontz, H.,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 No. 3, Dec., 1961.
- [45]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in Neurath, O. et. al. (eds.),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Unified Science*, 2nd ed. enlarged, Vol. II, No. 2, 1975.
- [46] Lakatos, I. &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1970.
- [47] Lazer, W., "Some Observations on the State of the Art of Marketing Theory," *Univ. of Washington Business Review*, Vol. 14,, No. 3, Feb., 1956.
- [48] Nadworny, M.J., *Scientific Management and the Unions*, 1900~1932 —A *Historical Analysis*—, 1955.
- [49] Popper, K.R.,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1972.
- [50] Raffée, H. und B. Abel, *Wissenschaftstheoretische Grundfragen der Wirtschaftswissenschaften*, 1979. (同日譯書)
- [51] Rothacker, E., *Logik und Systematik der Geisteswissenschaften*, 1958.
- [52] Schönplflug, F., *Betriebswirtschaftslehre, Methoden und Hauptströmungen*, 2 erw. Aufl., 1954.
- [53] Simon, H.A., "Approaching the Theory of Management," in [42].
- [54] Sombart, W., *Die Drei Nationalökonomie*, 1939.
- [55] Stahle, W.H., "Pladöyer für die Einbeziehung normativer Aussagen in die Betriebswirtschaftslehre," 2fbF., 25 Jahrg., Heft 3, 1973.
- [56] Tannenbaum, R., "Observations on Large Group and Syndicate Discussions," in [42].
- [57] Taylor, F.W., *Principles of Management*, 1911.
- [58] Taylor, F.W., *Shop Management*, 1903.
- [59] Tillett, A., T. Kempner & G. Wills, *Management Thinkers*, 1970. (同日譯書)
- [60] Urwick, L.F., "The Pattern of Management," *British Management Review*, Oct., 1955.

- [61] Villers, R., *The Dynamics of Industrial Management*, 1954.
- [62] Walters, G.A., *Consumer Behavior, Theory and Practices*, (rev. ed.), 1974.
- [63] Wheeler, B.O., "Renaissance in Business Theory," *Business Review*, Feb., 1965.
- [64] Whitehead, T.N., *Leadership in a Free Society, A Study in Human Relation Based on an Analysis of Present-day Industrial Civilization*, 1947.
- [65] Wöeh, G.,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1 Aufl., 1973.
- [66] Wren, D.A. *The Evolution of Management Thought*, 1972. (同日譯書)